

3. 전라남도 항목

- 3 - 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 - 2.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3 - 3. 월평균 가구소비
- 3 - 4. 청년 지원 정책
- 3 - 5.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 3 - 6. 빈집 활용방안
- 3 - 7.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3 - 8. 쓰레기 처리 만족도
- 3 - 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 - 10.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3 - 11. 여가활동
- 3 - 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3 - 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3 - 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군민 5명 중 3명은 결혼 및 자녀에 대해 긍정적

· 군민 5명 중 3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

-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1.5%로, 2022년(60.7%) 대비 0.8%p 증가함
-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군민 5명 중 3명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

-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2.3%로, 2022년(60.8%) 대비 1.5%p 증가함
-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군민이 희망하는 자녀 양육 지원정책은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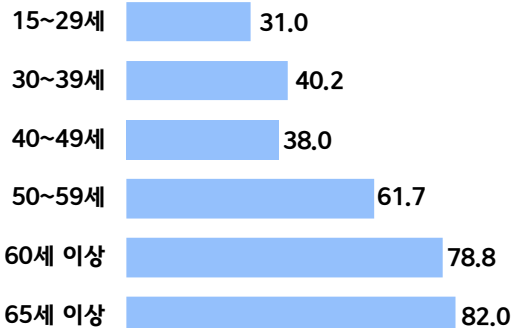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안정적인 직장 및 소득'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주택지원'(18.7%), '충분한 양육비 지원'(18.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군민이 응답한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고, '자녀 양육에 얽매이기 싫어서'(19.5%),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15.6%), '양육 비용 부담'(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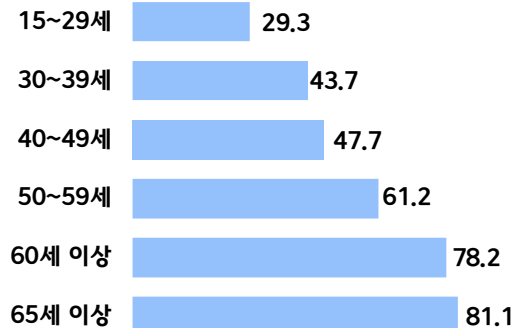
<< 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해야 한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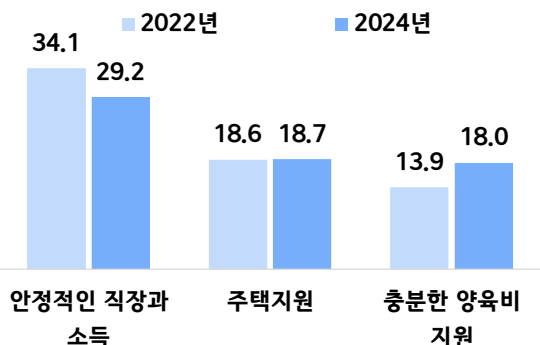
<<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견해(있어야 한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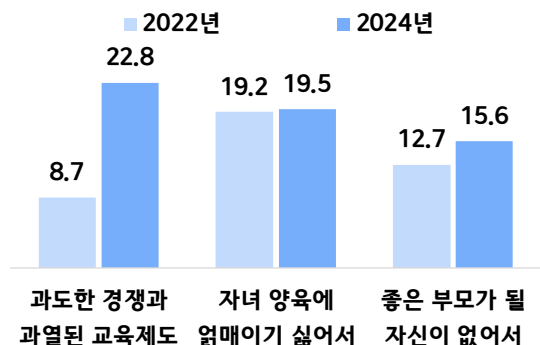
<< 자녀 양육 지원정책 >>

(단위 : %)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

(단위 :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1)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2 0 2 4 년	100.0	61.5	30.4	31.1	33.3	2.2	2.2	0.0	3.0	
2 0 2 2 년	100.0	60.7	29.5	31.2	32.1	3.3	2.7	0.6	4.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1.0	10.6	20.4	58.1	3.4	3.4	0.0	7.4	
3 0 ~ 3 9 세	100.0	40.2	13.4	26.8	54.0	4.8	4.8	0.0	1.0	
4 0 ~ 4 9 세	100.0	38.0	13.9	24.2	56.2	4.0	4.0	0.0	1.8	
5 0 ~ 5 9 세	100.0	61.7	18.6	43.1	33.7	1.6	1.6	0.0	3.0	
6 0 세 이상	100.0	78.8	47.2	31.7	17.4	1.3	1.2	0.1	2.5	
6 5 세 이상	100.0	82.0	52.0	29.9	15.0	0.7	0.7	0.0	2.3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2) 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계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없어도 된다	없는 편이 좋다		전혀 없어도 된다	잘 모르겠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편이 좋다			없는 편이 좋다	전혀 없어도 된다		
2 0 2 4 년	100.0	62.3	28.7	33.6	32.3	1.2	1.1	0.2	4.1	
2 0 2 2 년	100.0	60.8	27.3	33.5	31.9	3.3	2.6	0.7	4.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9.3	11.9	17.4	57.6	3.5	2.7	0.8	9.5	
3 0 ~ 3 9 세	100.0	43.7	12.4	31.3	45.9	1.9	1.9	0.0	8.4	
4 0 ~ 4 9 세	100.0	47.7	11.2	36.5	47.1	1.0	1.0	0.0	4.3	
5 0 ~ 5 9 세	100.0	61.2	20.5	40.7	34.8	1.1	1.1	0.0	2.9	
6 0 세 이상	100.0	78.2	43.5	34.7	18.7	0.6	0.5	0.1	2.5	
6 5 세 이상	100.0	81.1	48.0	33.1	16.1	0.5	0.5	0.0	2.2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 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부모 교육	아빠 양육 제도 문화	주택지원	안정적인 직장 소득	유치원, 돌봄 시설 확충	직장 육아 제도 확충	충분한 양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기타
2 0 2 4 년	100.0	10.7	2.7	18.7	29.2	7.4	5.8	18.0	7.4	0.1
2 0 2 2 년	100.0	6.8	5.1	18.6	34.1	6.7	8.2	13.9	6.4	0.2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4)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양육 비용 부담	일에 지장	자녀 양육에 얽매이기 싫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독박 육아 등 양육 시간과 노력 부담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기타
2 0 2 4 년	100.0	13.9	15.2	7.4	19.5	15.6	2.3	22.8	3.4
2 0 2 2 년	100.0	35.0	14.6	8.9	19.2	12.7	0.0	8.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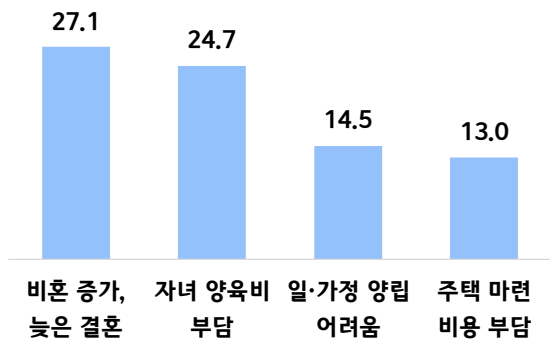
3 - 2. 저출산 원인 및 지원정책 (다중 응답)

군민이 응답한 저출산 원인은 비용 증가 및 늦은 결혼

- **군민 10명 중 3명은 저출산 원인이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라고 응답**
 - 저출산 원인이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1%로 가장 높았고, '자녀 양육비 부담'(24.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4.5%), '주택 마련 비용 부담'(1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5%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20.2%),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19.0%),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1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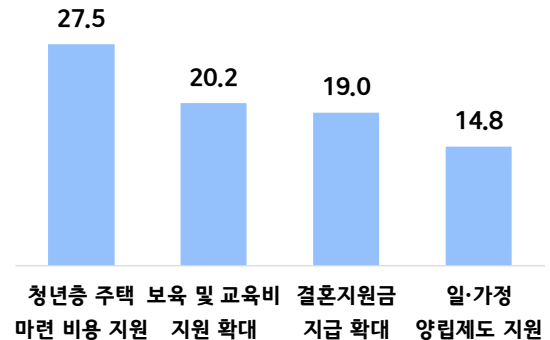
« 저출산 원인 »

(단위 : %)



« 저출산 해결 지원정책 »

(단위 : %)



저출산 원인 및 지원정책 - (1) 저출산 원인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타
2 0 2 4 년	100.0	27.1	14.5	24.7	3.5	7.9	13.0	9.0	0.4
2 0 2 2 년	100.0	29.7	15.0	25.6	4.9	8.2	8.8	7.5	0.3

저출산 원인 및 지원정책 - (2) 저출산 해결 지원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	임신·출산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2자녀 부터 다자녀 인정	출산·육아 후 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	기타
2 0 2 4 년	100.0	27.5	19.0	9.7	20.2	14.8	3.9	4.4	0.6
2 0 2 2 년	100.0	27.5	22.8	10.8	14.7	14.1	4.5	5.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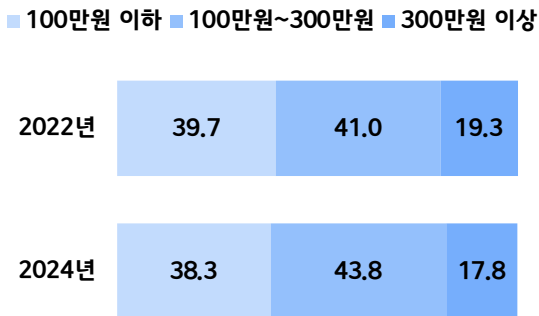
3 - 3. 월평균 가구소비

군민이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

- 2022년 대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소비하는 가구의 비율 증가
 -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이 '100만원~200만원'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27.0%로 가장 높았고, '50만원~100만원'(25.7%), '200만원~300만원'(1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61.6%로, 2022년(60.3%) 대비 1.3%p 증가함
- 군민 5명 중 2명은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이 식료품비라고 응답
 -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이 '식료품비'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4.5%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비'(18.3%), '주거비'(8.3%), '교통비'(6.9%)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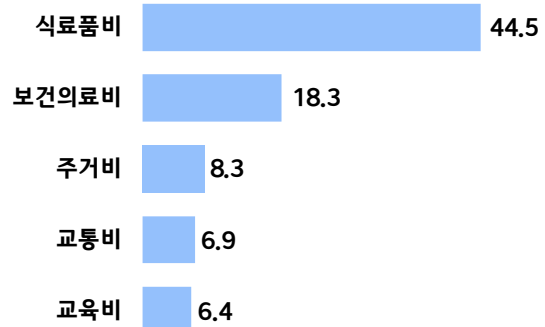
<< 월평균 가구소비 >>

(단위 : %)



<<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종합) >>

(단위 : %)



월평균 가구소비 - (1) 소비지출액

(단위 :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4년	100.0	12.6	25.7	27.0	16.8	7.9	4.8	2.6	1.2	0.2	1.1
2022년	100.0	12.9	26.8	22.4	18.6	9.9	4.2	1.7	1.9	0.6	1.0

월평균 가구소비 - (2)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 (종합)

(단위 : %)

구분	계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여가활동비	통신비	경조사비	기타
2024년	100.0	44.5	8.3	6.9	4.1	1.1	18.3	6.4	2.3	2.4	3.7	1.9
2022년	100.0	48.1	9.2	9.2	5.8	1.5	13.9	6.4	0.7	2.2	1.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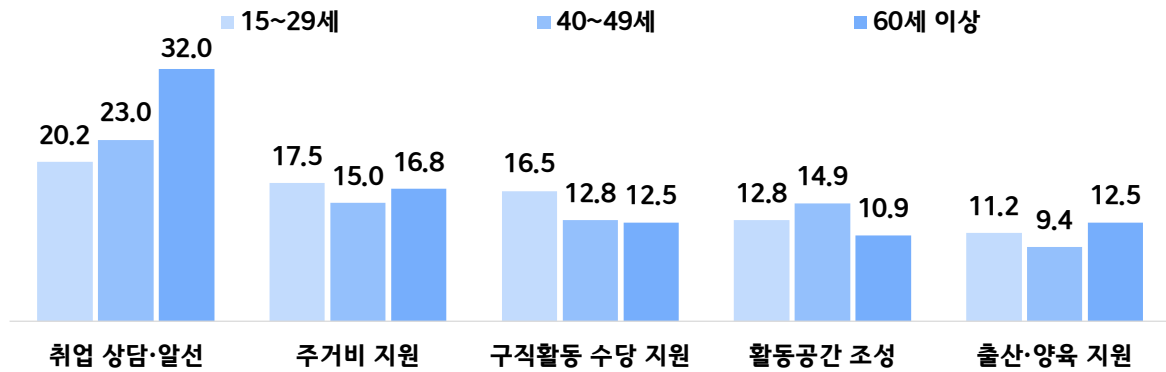
3 - 4. 청년 지원정책 (다중 응답)

군민이 필요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알선

- **군민 4명 중 1명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상담·알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 ‘취업 상담·알선’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8%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 지원’(17.3%), ‘구직활동 수당 지원’(1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응답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 ‘취업 상담·알선’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32.3%로 가장 높았고, 30~39세(17.3%), 15~29세(20.2%)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 30~39세에서 ‘지자체 적립 통장 지원’ 항목의 응답률이 11.6%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고, ‘활동공간 조성·운영’의 응답률이 6.9%로 타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청년 지원 정책 >>

(단위 : %)



청년 지원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분	계	활동공간 조성·운영	구직활동수당 지원	취업 상담·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 지원	지자체 적립 통장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정책 홍보	출산·양육 지원	건강 상담 지원	기타
2024년	100.0	11.8	12.3	27.8	9.4	17.3	2.9	4.2	1.1	11.8	1.1	0.3
2022년	100.0	10.2	13.2	29.2	13.8	16.4	2.8	4.9	1.5	7.1	0.8	0.1
< 연령별 >												
15~29세	100.0	12.8	16.5	20.2	8.0	17.5	3.4	7.1	2.0	11.2	1.4	0.0
30~39세	100.0	6.9	10.3	17.3	10.1	18.7	11.6	2.6	1.6	17.7	2.7	0.5
40~49세	100.0	14.9	12.8	23.0	12.4	15.0	2.2	7.5	0.5	9.4	1.0	1.1
50~59세	100.0	13.5	9.3	30.3	8.4	19.5	1.7	5.2	1.7	9.3	0.8	0.2
60세 이상	100.0	10.9	12.5	32.0	9.3	16.8	1.7	2.5	0.7	12.5	0.9	0.2
65세 이상	100.0	10.2	12.7	32.3	8.8	17.3	1.8	2.5	0.7	12.8	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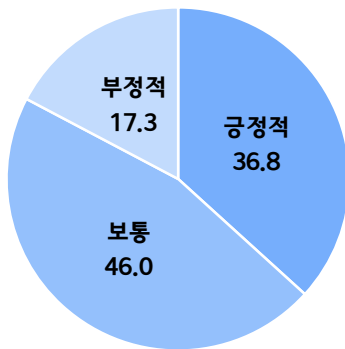
3 -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군민 5명 중 2명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36.8%로 나타남**
 -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6.0%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인식'(36.8%), 부정적 인식(1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군민이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
 - 외국인 노동자에 부정적이지 않은 군민 중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한국어 교육'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6.0%로 가장 높았고, '문화 교류 및 적응 프로그램'(22.6%), '주거 지원'(1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

(단위 : %)



<<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

(단위 : %)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 (1)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긍정적 인식			보통이다	부정적 인식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2024년	100.0	9.9	26.9	46.0	17.3	14.5	2.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8.9	19.9	53.1	18.1	15.9	2.2	
북 부 권	100.0	11.7	39.8	38.0	10.5	8.4	2.2	
서 부 권	100.0	10.1	34.7	40.7	14.4	11.2	3.2	
광 주 인 근 권	100.0	10.5	22.9	41.9	24.8	21.0	3.8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 (2)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단위 : %)

구 분	계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및 적응 프로그램	주거 지원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법률 상담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기타
2024년	100.0	46.0	22.6	13.7	12.8	2.5	2.2	0.3

3 - 6. 빈집 활용방안

군민 10명 중 3명은 빈집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

· 군민 5명 중 3명은 빈집이 거의 없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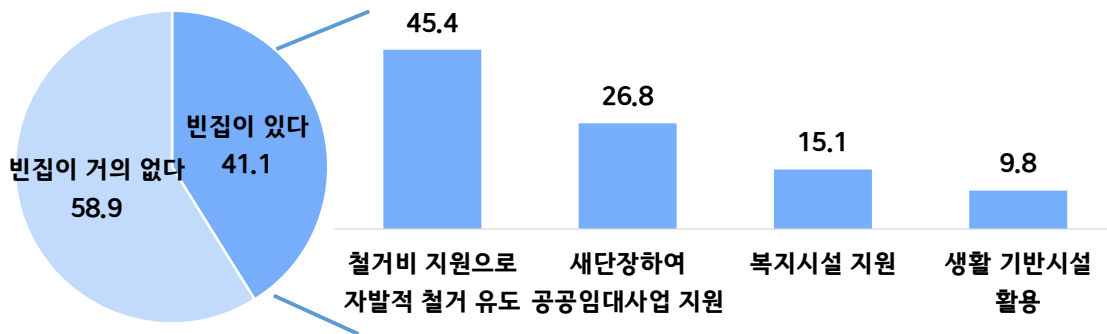
- '빈집이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8.9%로 나타났고, '빈집이 조금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2.1%, '빈집이 많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8.9%로 나타남
- '빈집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9%로, 2022년(19.1%) 대비 9.8%p 증가함

· 군민이 생각하는 빈집 처리 방안은 철거비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

- 빈집 처리 방안이 '철거비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5.4%로 가장 높았고,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26.8%),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빈집 여부 및 빈집 활용방안 >>

(단위 : %)



빈집 활용방안 - (1) 빈집 수와 방치정도

(단위 : %)

구 분	계	빈집이 거의 없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2 0 2 4 년	100.0	58.9	10.7	21.4	1.4	7.5
2 0 2 2 년	100.0	71.4	8.2	13.3	1.4	5.8

빈집 활용방안 - (2) 빈집 활용방안

(단위 : %)

구 분	계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재활용 가능한 빈집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주민 휴식공간, 및 공원 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	공용 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활용	기타
2 0 2 4 년	100.0	45.4	26.8	15.1	9.8	2.8
2 0 2 2 년	100.0	37.6	31.9	17.6	10.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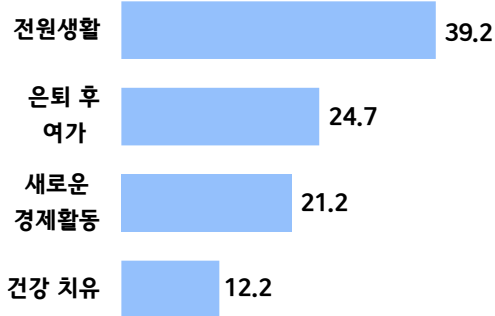
3 - 7.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정착자금 용자 지원

- **군민 5명 중 2명은 귀농어·귀촌을 하는 이유가 전원생활이라고 응답**
 - 귀농어·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원생활'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9.2%로 가장 높았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24.7%),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21.2%), '건강 치유'(1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정착자금 용자 지원**
 - 귀농어·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 지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1.7%로 가장 높았고,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30.1%),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2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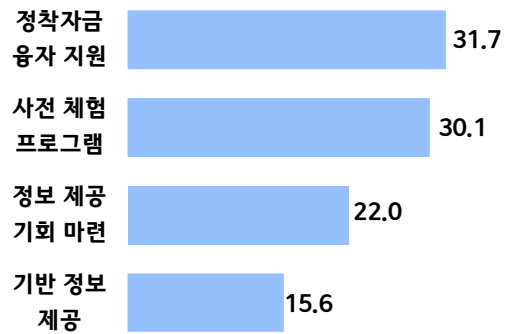
<< 귀농어·귀촌 이유 >>

(단위 : %)



<< 귀농어·귀촌 지원정책 >>

(단위 : %)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1) 귀농어·귀촌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전원생활	건강 치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집안의 가업 승계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이용	기타
2024년	100.0	39.2	12.2	24.7	21.2	2.0	0.5	0.2
2022년	100.0	41.8	13.1	28.9	13.7	1.4	1.0	0.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3.6	15.3	27.0	21.8	1.4	0.7	0.2
북 부 권	100.0	40.7	17.1	23.0	17.4	1.4	0.5	0.0
서 부 권	100.0	44.8	5.9	20.5	25.0	3.4	0.0	0.3
광 주 인 근 권	100.0	44.5	8.6	26.3	17.7	1.9	1.0	0.0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2) 귀농어·귀촌 지원정책

(단위 : %)

구 분	계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마련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 지원	귀농어·귀촌 지역에 대한 기반정보 제공	기타
2024년	100.0	22.0	30.1	31.7	15.6	0.5
2022년	100.0	18.8	31.8	35.8	13.0	0.5

3 - 8. 쓰레기 처리 만족도

군민은 전라남도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 대체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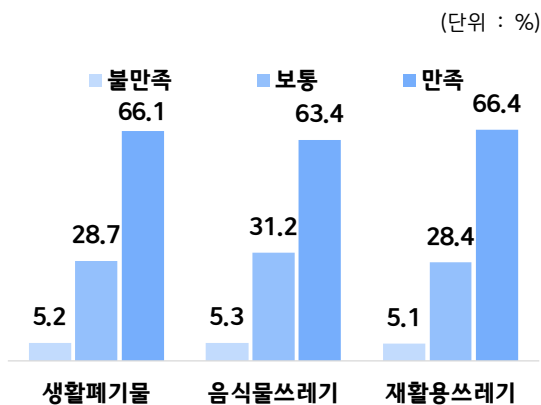
• 군민의 쓰레기 처리 만족도는 2022년 대비 증가

-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6.1%,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3.4%,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6.4%로 나타남
- 전라남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모두 3.9점으로 2022년(각각 3.8점) 대비 모든 분야에서 0.1점 증가함
-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중부권에서 72.0%로 가장 높았고, 북부권(66.6%), 광주인근권(64.8%), 서부권(5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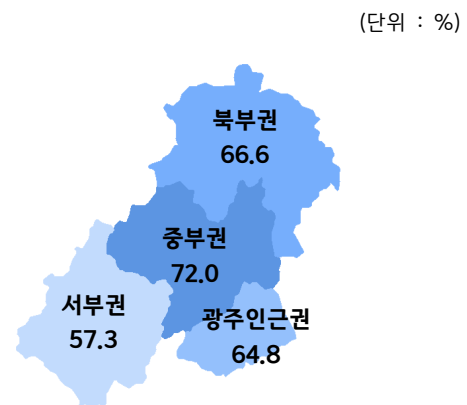
•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쓰레기 종류별로 차이를 보임

-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21.8%),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50.8%, 33.4%)로 나타남
- 광주인근권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6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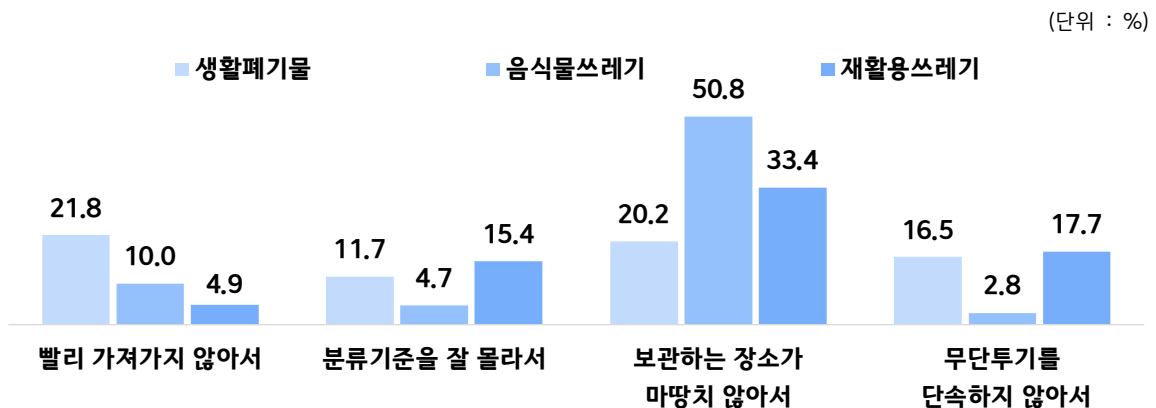
<< 쓰레기 처리 만족도 >>



<< 지역별 재활용 쓰레기 처리 만족도(만족) >>



<<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쓰레기 처리 만족도

(단위 : 점, %)

구 분	평균 만족도	계	해당 있음										해당 없음
				소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생활폐기물													
2 0 2 4 년	3.9	100.0	99.8	100.0	66.1	32.1	34.1	28.7	5.2	3.5	1.6	0.2	
2 0 2 2 년	3.8	100.0	99.0	100.0	63.1	23.2	39.9	32.3	4.6	3.1	1.6	1.0	
(2) 음식물 쓰레기													
2 0 2 4 년	3.9	100.0	95.7	100.0	63.4	31.6	31.9	31.2	5.3	2.5	2.8	4.3	
2 0 2 2 년	3.8	100.0	97.8	100.0	62.8	22.7	40.1	31.2	6.0	4.2	1.7	2.2	
(3) 재활용 쓰레기													
2 0 2 4 년	3.9	100.0	99.7	100.0	66.4	32.9	33.5	28.4	5.1	3.3	1.8	0.3	
2 0 2 2 년	3.8	100.0	99.0	100.0	64.1	23.2	40.9	31.6	4.3	3.2	1.1	1.0	
< 지역 별 >													
중 부 권	4.0	100.0	99.6	100.0	72.0	35.9	36.0	25.1	2.9	1.9	1.0	0.4	
북 부 권	3.9	100.0	100.0	100.0	66.6	36.8	29.8	23.0	10.4	6.6	3.7	0.0	
서 부 권	3.7	100.0	99.5	100.0	57.3	26.3	31.0	35.9	6.9	5.1	1.7	0.5	
광 주 인 근 권	3.9	100.0	100.0	100.0	64.8	30.8	33.9	31.3	3.9	1.7	2.3	0.0	

쓰레기 처리 만족도 - 불만족 이유

(단위 :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4) 생활폐기물(불만족 이유)								
2 0 2 4 년	100.0	21.8	11.7	5.2	3.7	20.2	16.5	21.0
2 0 2 2 년	100.0	31.6	5.7	19.0	1.3	24.8	9.6	8.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0.0	0.0	11.9	7.8	34.0	6.2	0.0
북 부 권	100.0	6.1	12.5	3.3	0.0	23.2	18.4	36.5
서 부 권	100.0	39.6	8.5	18.1	0.0	13.1	11.8	8.9
광 주 인 근 권	100.0	30.3	0.0	13.8	0.0	12.8	35.2	7.9
(5) 음식물 쓰레기(불만족 이유)								
2 0 2 4 년	100.0	10.0	4.7	13.4	1.6	50.8	2.8	16.8
2 0 2 2 년	100.0	29.4	3.3	17.1	0.0	29.8	6.0	14.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6.9	6.7	0.0	0.0	66.4	0.0	0.0
북 부 권	100.0	13.4	4.5	11.4	0.0	35.9	9.4	25.4
서 부 권	100.0	24.2	17.1	8.2	0.0	34.9	6.7	8.8
광 주 인 근 권	100.0	60.5	0.0	3.9	0.0	27.6	8.1	0.0
(6) 재활용 쓰레기(불만족 이유)								
2 0 2 4 년	100.0	4.9	15.4	3.9	0.0	33.4	17.7	24.7
2 0 2 2 년	100.0	30.4	8.5	17.8	0.0	20.5	13.9	8.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51.6	6.2	22.3	0.0	19.9	0.0	0.0
북 부 권	100.0	13.6	7.6	13.0	0.0	26.1	10.7	29.0
서 부 권	100.0	16.8	27.7	28.5	0.0	14.8	2.5	9.8
광 주 인 근 권	100.0	53.3	32.7	0.0	0.0	0.0	8.9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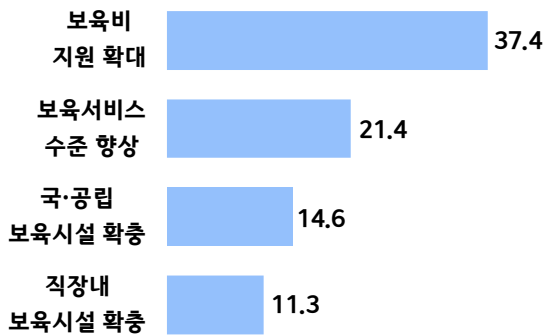
3 - 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 **군민 5명 중 2명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7.4%로 가장 높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4.6%),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1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2년(31.3%) 대비 6.1%p 증가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연령별 차이를 보임**
 - 30~39세 군민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0.8%)이라고 응답함
 -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29세, 30~39세에서 각각 13.2%, 13.4%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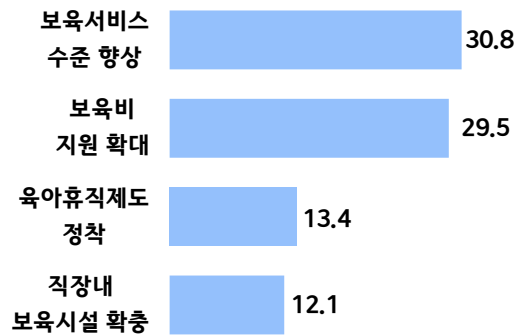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단위 : %)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30~39세) ▶▶

(단위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구 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 0 2 4 년	100.0	37.4	14.6	11.3	21.4	8.2	7.1	0.0
2 0 2 2 년	100.0	31.3	18.8	10.5	26.6	5.6	6.8	0.5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1.2	17.4	6.3	22.8	9.0	13.2	0.0
3 0 ~ 3 9 세	100.0	29.5	6.6	12.1	30.8	7.7	13.4	0.0
4 0 ~ 4 9 세	100.0	40.1	17.0	5.3	27.1	7.4	3.1	0.0
5 0 ~ 5 9 세	100.0	38.0	17.7	11.4	19.3	6.8	6.9	0.0
6 0 세 이 상	100.0	39.5	13.4	13.9	18.9	8.9	5.4	0.0
6 5 세 이 상	100.0	39.6	13.2	14.8	18.4	9.2	4.8	0.0

3 - 10.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군민이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

• **군민 5명 중 3명은 부부 둘이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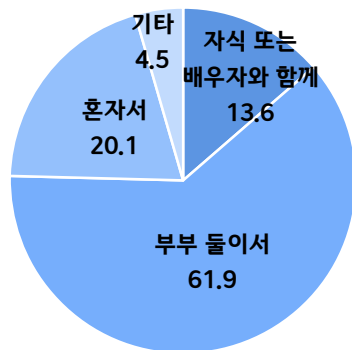
-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가 '부부 둘이서'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1.9%로 가장 높았고, '혼자서'(20.1%), '자식 또는 배우자와 함께'(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부 둘이서'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17년(72.9%) 대비 11.0%p 감소했고, '혼자서'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17년(14.1%) 대비 6.0%p 증가함
- 북부권의 경우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가 '이웃과 함께'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5.1%로 타 지역권 대비 높게 나타남

• **군민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가장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

- 노후 생활을 '부부 둘이서' 보내고 싶은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66.8%), '전원주택'(15.9%), '실버타운'(12.5%), '요양원'(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 생활을 '혼자서' 보내고 싶은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57.7%), '실버타운'(20.3%), '요양원'(8.9%), '전원주택'(8.7%)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북부권의 경우 '실버타운'의 응답률이 2.9%로 타 지역권 대비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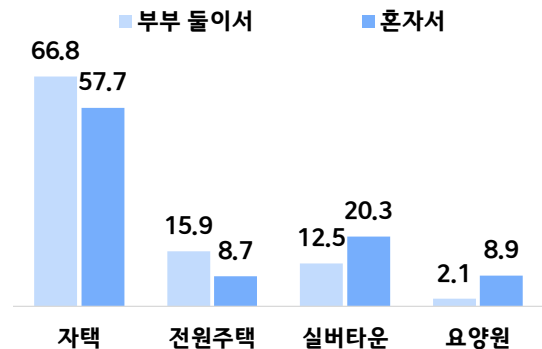
◀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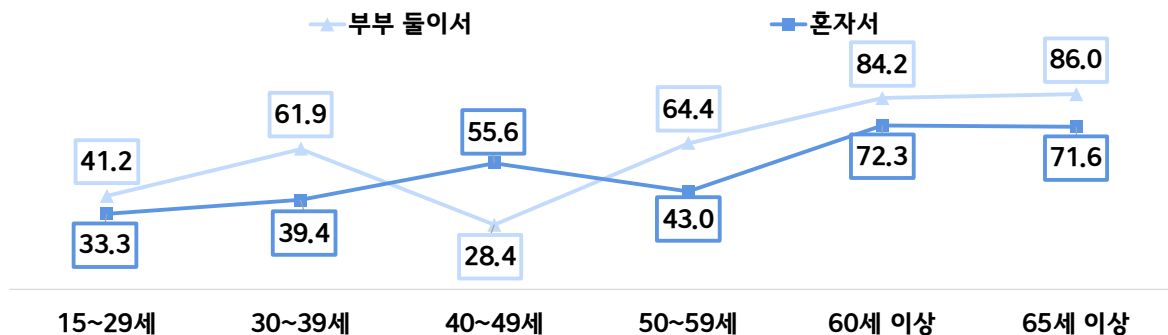
◀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 ▶

(단위 : %)



◀ 연령별 자택 응답률(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 ▶

(단위 :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1)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단위 : %)

구 분	계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와 함께	부부 둘이서	혼자서	친인척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기타
2 0 2 4 년	100.0	13.6	61.9	20.1	0.2	2.0	2.1	0.2
2 0 1 7 년	100.0	9.0	72.9	14.1	0.1	1.1	1.3	1.6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4.5	65.7	17.2	0.3	0.7	1.5	0.0
북 부 권	100.0	8.1	65.6	17.6	0.3	5.1	2.9	0.3
서 부 권	100.0	12.9	60.5	21.7	0.0	1.8	2.3	0.7
광 주 인 근 권	100.0	16.8	50.7	27.4	0.0	2.6	2.5	0.0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희망하는 요양서비스 장소

(단위 : %)

구 분	계	자택 (현재 집)	전원주택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실버타운 (노인 전용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2) 희망하는 요양서비스 장소(부부 둘이서)								
2 0 2 4 년	100.0	66.8	15.9	2.1	2.0	12.5	0.5	0.2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66.1	20.7	0.5	1.2	10.9	0.6	0.0
북 부 권	100.0	78.0	5.2	6.5	0.4	8.4	0.8	0.7
서 부 권	100.0	59.7	19.8	1.9	4.7	13.1	0.3	0.5
광 주 인 근 권	100.0	68.3	5.9	2.8	1.7	21.3	0.0	0.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1.2	37.4	0.0	2.2	17.0	2.2	0.0
3 0 ~ 3 9 세	100.0	61.9	13.2	0.0	3.5	21.5	0.0	0.0
4 0 ~ 4 9 세	100.0	28.4	39.6	1.6	4.9	25.5	0.0	0.0
5 0 ~ 5 9 세	100.0	64.4	18.4	0.5	1.0	14.5	0.6	0.5
6 0 세 이상	100.0	84.2	4.4	3.7	1.4	6.0	0.1	0.2
6 5 세 이상	100.0	86.0	4.5	3.4	1.4	4.2	0.2	0.3
(3) 희망하는 요양서비스 장소(혼자서)								
2 0 2 4 년	100.0	57.7	8.7	8.9	3.1	20.3	0.3	1.0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55.2	14.3	6.7	0.0	21.0	0.0	2.8
북 부 권	100.0	84.5	1.7	11.0	0.0	2.9	0.0	0.0
서 부 권	100.0	65.4	5.4	6.0	5.1	18.0	0.0	0.0
광 주 인 근 권	100.0	38.3	7.1	14.5	7.7	31.2	1.3	0.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3.3	25.1	3.7	9.0	21.5	0.0	7.4
3 0 ~ 3 9 세	100.0	39.4	5.4	6.9	0.0	48.3	0.0	0.0
4 0 ~ 4 9 세	100.0	55.6	4.3	0.0	0.0	40.1	0.0	0.0
5 0 ~ 5 9 세	100.0	43.0	13.1	8.8	6.1	28.9	0.0	0.0
6 0 세 이상	100.0	72.3	3.9	12.5	1.5	9.2	0.6	0.0
6 5 세 이상	100.0	71.6	4.6	13.6	1.2	9.1	0.0	0.0

3 - 11. 여가활동 (다중 응답)

군민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 및 DVD 시청

· 군민이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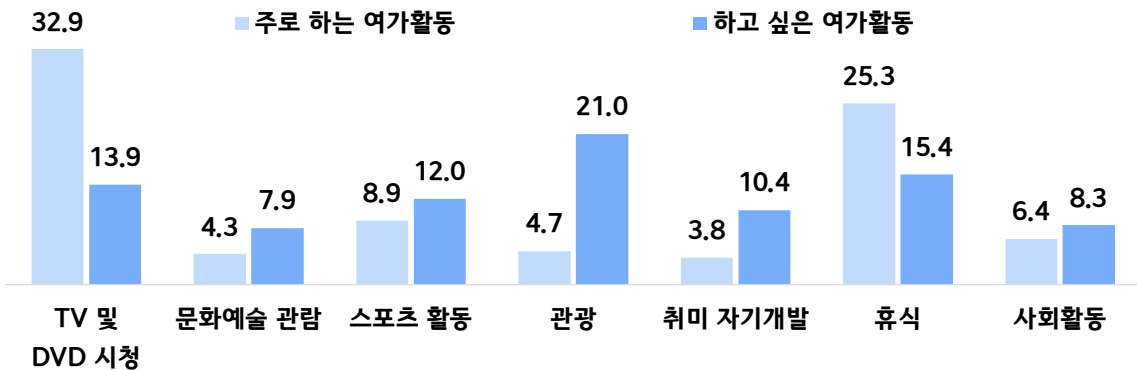
-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TV 시청 및 DVD 시청'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9%로 가장 높았고, '휴식'(25.3%), '스포츠 활동'(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 'TV 시청 및 DVD 시청'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2년(34.4%) 대비 1.5%p 감소함

· 군민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관광'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1.0%로 가장 높았고, '휴식'(15.4%), 'TV 시청 및 DVD 시청'(13.9%), '스포츠 활동'(1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관광'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2년(22.6%) 대비 1.6%p 감소함

<< 여가활동 >>

(단위 : %)



여가활동 (다중 응답)

(단위 : %)

구분	계	TV 시청 및 DVD 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활동 및 기타 활동	기타
(1)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다중 응답)												
2024년	100.0	32.9	4.3	1.6	4.8	8.9	4.7	6.4	3.8	25.3	6.4	1.0
2022년	100.0	34.4	4.6	1.0	4.3	7.8	3.6	7.9	3.3	27.8	4.3	0.9
(2)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다중 응답)												
2024년	100.0	13.9	7.9	3.4	3.6	12.0	21.0	3.8	10.4	15.4	8.3	0.3
2022년	100.0	10.7	7.4	2.7	3.6	12.3	22.6	3.3	10.7	17.2	9.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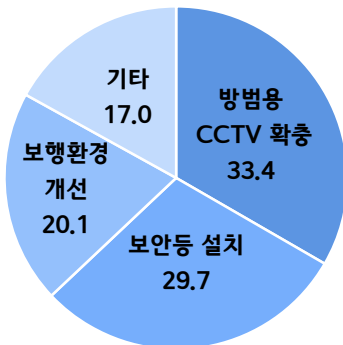
3 - 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은 방법용 CCTV 확충

- **군민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방법용 CCTV 확충이라고 응답**
 -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방법용 CCTV 확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3.4%로 가장 높았고,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 지역 해소’(29.7%), ‘보행환경 개선’(2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방법용 CCTV 확충’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2년(40.7%) 대비 7.3%p 감소함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매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 상승 홍보 및 교육’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29세에서 17.9%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30~39세의 경우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및 주민 자율 순찰 강화’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3.4%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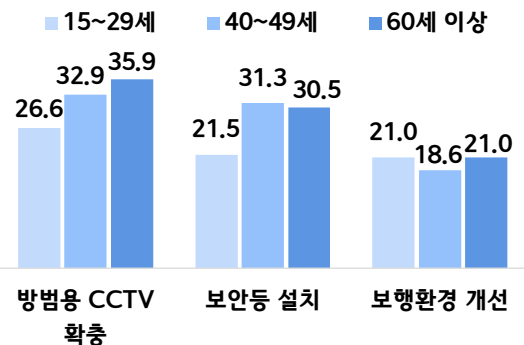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단위 : %)



<< 연령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단위 :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

구분	계	방법용 CCTV 확충	보안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	보행환경 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강화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및 주민자율 순찰강화	매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 상승 홍보 및 교육	기타
2024년	100.0	33.4	29.7	20.1	4.9	3.7	6.7	1.7
2022년	100.0	40.7	26.3	18.0	3.8	4.0	6.2	1.1
< 연령별 >								
15~29세	100.0	26.6	21.5	21.0	5.3	7.7	17.9	0.0
30~39세	100.0	36.0	21.9	17.2	1.0	13.4	10.4	0.0
40~49세	100.0	32.9	31.3	18.6	9.6	4.5	2.0	0.9
50~59세	100.0	30.6	35.2	18.9	6.4	1.6	5.6	1.6
60세 이상	100.0	35.9	30.5	21.0	3.6	1.6	4.7	2.6
65세 이상	100.0	37.5	28.9	20.8	3.6	2.1	4.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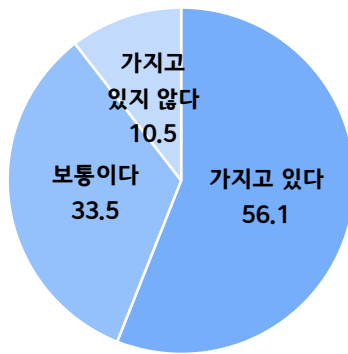
3 - 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군민 5명 중 3명은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가지고 있음

- **군민 5명 중 3명은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6.1%로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2년(58.9%) 대비 2.8%p 감소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은 지역별, 연령별 차이를 보임**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북부권에서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68.8%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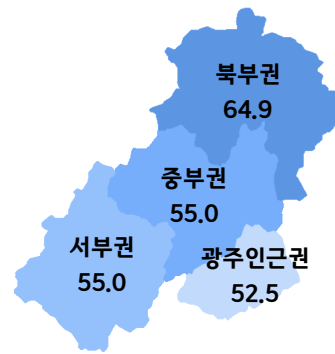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단위 : %)



◀ 지역별 소속감 및 자부심(가지고 있다) ▶

(단위 :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

구 분	계	가지고 있다			보통이다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가지고 있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2024년	100.0	56.1	18.1	38.0	33.5	10.5	8.8	1.7
2022년	100.0	58.9	17.8	41.1	32.2	8.9	7.7	1.3
< 지역 별 >								
중부권	100.0	55.0	13.6	41.5	35.6	9.3	8.4	0.9
북부권	100.0	64.9	34.9	29.9	30.4	4.7	4.2	0.5
서부권	100.0	55.0	14.6	40.4	31.6	13.4	9.7	3.7
광주인근권	100.0	52.5	19.9	32.7	33.0	14.4	12.5	1.9
< 연령 별 >								
15 ~ 29세	100.0	35.5	4.8	30.6	43.0	21.5	13.6	7.9
30 ~ 39세	100.0	32.1	4.9	27.2	46.0	21.8	19.7	2.1
40 ~ 49세	100.0	47.9	7.0	40.9	34.8	17.3	15.4	2.0
50 ~ 59세	100.0	56.5	18.6	37.9	36.4	7.0	6.2	0.8
60세 이상	100.0	67.3	26.3	41.0	27.3	5.3	5.1	0.3
65세 이상	100.0	68.8	27.8	41.1	26.5	4.6	4.5	0.2